

강원&강원영동 광역화 실패의 책임, '잉여인력' 때문인가?

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. 후안무치(厚顔無恥)가 CBS의 시대정신인 것인가? 기획조정실에서 내놓은 강원본부와 강원영동본부 광역 운영을 위한 직제조정, 목적은 그럴싸하다.

1. 강원본부와 강원영동본부 분담 체제의 전략화 및 세부화

2. 조직 슬림화를 통한 경영안정 체계 구축 및 전략분야 집중을 통한 언론,선교기능 강화
하지만 실상은 강원과 강원영동지역의 직원들이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광역화가 실패했으니 직원들이 그 책임을 지라는 것.

강원과 강원영동지역의 반응이 과민한 것일까? 전혀 그렇지 않다. 기초실에서 내놓은 직제조정. 그리고 첨부된 광역운영방안만 보더라도 의도가 대놓고 드러나 있다. 직원들을 '잉여인력'이라 통칭, 실명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평가 없이 '보통', '빈약', '심각하게 빈약' 등급을 매겨 구분하고, 심지어 일부 조합원의 이야기를 맥락 없이 재편집해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작성하였다.

강원&강원영동본부가 분개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. 회사는 정말 강원과 강원영동의 광역화가 직원들만 똑바로 했다면 성공했을 정책이라고 보는 것인가? 어떠한 고민도 없이 단순히 강원영동의 직원을 강원으로 몰아넣는 것만으로 광역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? 이미 강원&강원영동본부는 광역화가 하나의 설로 나돌던 시점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.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?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된 시뮬레이션 지표와 결과를 공개해달라! 전부터 수차례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광역화가 추진되었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강원&강원영동본부를 사지로 몰아넣었다.

회사는 강원&강원영동 광역화 실패의 원인을 다시 진단하고, 보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지, 무엇보다 인사조정과 직제 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재고해야 한다. 그리고 그 책임을 오롯이 직원들에게만 전가하는 뻔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.

2025. 01. 13

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강원지회